

광양시, '배알도 별빛야영장' 개장... 체류형 관광 거점 본격 가동

카라반 10대 포함 100면 규모... 캠핑·문화·체험 갖춘 복합 휴식 공간 조성

광양시는 지난 14일 '배알도 별빛야영장'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광양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개장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캠핑 시설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이어져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배알도 수변공원 일대는 노을과 어우러져 야영장의 개장을 더욱 뜻깊게 했다.

방문객들은 야영장 곳곳을 살펴보고 사진을 찍는 등 새롭게 문을 연 관광시설에 관심을 보였다.

배알도 별빛야영장은 섬진강과 바다가 맞닿는 자연환경 속에 조성된 체류형 관광 시설이다.

캠핑과 휴식은 물론 문화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광양시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영장은 카라반 10대를 포함해 총 100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66면을 우선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34면은 오는 9월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샤워장, 개수대, 세족장, 커뮤니티센터 등의 편의시설과 버스킹 공연장, 네트체력시설, 어린이 집라인, 바닥분수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

야영장 이용은 인터넷 예약 사이트 '캠



핏'(www.camfit.c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가능 일정과 이용요금, 시설 현황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배알도 별빛야영장은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자연 속에서

캠핑과 휴식,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배알도 섬정원과 섬진강 별빛스카이, 정병옥 가족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 1박 2득' 접수 2000명 돌파... 관광 소비 1.2억 원 기대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로 체류형 관광 전환 가속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나주 1박 2득'이 시행 초기부터 높은 참여를 보이며 체류형 관광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3월 15일 기준 접수 인원이 2000명을 넘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지원금 규모는 5000만 원이라고 16일 밝혔다.

'나주 1박 2득'은 나주를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체류 유도 사업으로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행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물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황포돛배 할인권과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해 숙박과 관광,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이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 국민

여행조사'에 따르면 관광 숙박여행 1인 평균 지출액은 6만 1000원으로 3월 13일 기준 접수 인원 2000명에 이를 적용하면 약 1억 2000만 원 규모의 직접 관광 소비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현재 집계된 지원금 5000만 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숙박과 음식점, 카페, 체험, 쇼핑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의 효과를 보여준다. 나주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기존 여행 3일 전까지 가능했던 사전 신청 기준을 여행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는 '나주 1박 2득'을 통해 단순 방문 중심 관광 흐름을 체류와 소비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한 개선으로 이용 편의를 높인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정책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 확대에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강진군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보은산 힐링센터에서 '생애주기별 보은산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보은산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마음챙김' ▲중년층의 '마음충전' ▲노년층의 '마음정돈' 등 각 연령대별 특성에 맞춤 차별화된 심리 지원 힐링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 정서안정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소홀하기 쉬운 마음건강 관리를

강진군, 생애주기별 '보은산 마음건강 프로그램' 본격 운영

"보은산 힐링센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세요"

위해 정신건강검사 및 교육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원예치유 ▲다도 체험 ▲아로마테라피 ▲신체활동(요가 또는 근력운동)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들의 정서회복을 돕고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은산 힐링센터는 강진군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식 공간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로 지친 군민의 마

음을 돌보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개방되고 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상설서비스로 ▲정신건강 검사(불안 및 우울 선별검사, 스트레스 측정) ▲신체회복 건강서비스(안마기, 발마사지기), ▲VR(가상 현실) 활용 두뇌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는 지난해 기준 1,891명에 달하며 주민들의 호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음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보은산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되찾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및 보은산 힐링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마음건강팀(061-430-5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완도군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2026년도 조림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조림 사업은 기후 위기로 인한 산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주 소득 증대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은 정부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사업도 이에 맞춰 실시하게 됐다.

완도군, 조림 사업 착수 '탄소흡수원 확대한다'

13억 투입, 경제림·재해 방지·지역 특화 조림 조성

군은 기후·임지 여건과 산림 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 경제림(47ha), 재해 방지(10ha), 지역 특화(45ha) 등 총 102ha를 대상으로 조림을 조성한다.

한계 농지, 수변 구역 등 활용도가 낮은 유휴 토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 외

토지에도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토지 소유자는 경제 수목 식재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종은 지역 환경에 조림하기에 적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황칠나무와 편백, 완도호랑가시, 붉가시 나무 등을 식재한다.

특히 조림 후 숲 가꾸기와 풀베기, 쪼딩

굴 제거 등을 통해 고사 및 생육 저해를 예방하고 조림 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는 물론 재해 예방과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산림 정책을 통해 숲을 건강하게 가꾸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의자가 직접 참여해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과 처리계

무안군, 군민 건의사항 현장 방문 점검

9개 읍·면 순회하며 추진 상황과 처리계획 설명

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안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건

의사항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 협의

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과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균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제8회 화순 난 명품박람회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

3월 18일~20일 한우 등심 53% 할인... 20여 개 농특산물 판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8회 화순 난 명품박람회'와 연계해 화순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 부스는 제8회 화순 난 명품박람회가 열리는 화순군 하나문화스포츠센터에서 10개 입점 업체가 참여한다. 딸기·기정떡·쌍화주·수제약과·버섯 등 20여 개 농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정은 "화순팜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와 혜택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제8회 화순 난

명품박람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개최에 앞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화순팜에서는 한우 등심 200g(정가 25,000원)을 53% 할인된 11,750원에 판매하는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해당 가격은 화순축산협동조합의 48% 자체 할인에 화순팜 5% 할인 쿠폰이 추가 적용된 금액이다.

해당 상품은 화순팜 홈페이지(https://www.hwasunfarm.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에게는 이벤트 혜택과 함께 3,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